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마음의 평화 자유

우리가 원하는 마음의 평화와 자유는 언제나 가능해요. 기분이 항상 좋을 수는 없지만 안심과 해방은 언제나 가능해요.

마음을 쉴 때 알아차림이 저절로 드러나요. 생각을 버릴 때 참본성의 자유와 평화가 저절로 드러나요.

저항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알아보고 익숙해질 뿐이에요. 그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앎을 항상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이미 자유롭고 평화로워요. 매 순간 가능해요!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⑫ 야생 고차수 보이차

종소리처럼 온몸 울리는 천년 기운

애차인(愛茶人)으로서 차를 예찬하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차나무가 스승이 되어주기 때문이라고 답하겠습니다. '가인여차(佳人如茶)'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차를 닮았다는 뜻이지요. 차를 마시며 차를 닮으면 대자연의 품으로 회귀하여 숲의 향기를 품은 사람,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럽고 겸손하고 품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야생 고차수 보이차의 맛은 어떠할까요? 차나무 나이가 1000년이 넘었다고 하면 왠지 차가 메마를 것 같고, 야생차라고 하면 좀 더 거칠고 쓸 것 같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나무는 정 반대입니다. 100살, 500살, 1000살이 넘은 고차수일수록 차는 더욱 달고 부드럽고 천연 원시림의 야생차일수록 더욱 상쾌하고 향기롭습니다.

야생 고차수 보이차를 맛보고 싶은 분이라면 세 개의 차산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무량산, 대설산, 애뢰산. 산이 높고 운무가 발달한 곳에서 좋은 차가 납니다. 중국 운남에서 귀주에 펼쳐진 큰 산들을 포괄하여 운귀고원이라고 하는데 무량산, 대설산, 애뢰산은 그 중 일부이며 해발 3000m가 넘습니다. 운귀고원은 2억 년 전에 바다가 융기한 곳이며, 4기 빙하기 때에 빙하의 피해를 입지 않아서 원 생태 식물과 동물의 보고인 곳입니다. 차나무의 유전자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곳의 차나무가 세계 차나무의 원산지로 밝혀졌습니다.

무량산은 차산 중에서 가장 높고 야생 차나무 군락지의 면적도 가장 넓습니다. 산이 높고 계곡이 깊은 울창한 삼림지대로 예로부터 란창강 상류에서 가장 유명한 차산입니다. 중국 삼국시대부터 차를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청말 민국 초에 고6대 차산이 파괴되면서 보이차의 명산으로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무량산은 해발 1600m에서 2800m 사이에 야생차나무가 분포되어 있으며 수령이 1000년이 넘는 야생 차나무도 어디서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생차는 물론이고 재배차든 현대화된 개량종이든 최초 형태의 차나무 수종이 가장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차나무의 박물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종미 교수가 인사동 티하우스 잇다(it 茶)에서 우린 무량산 천년 야생 고차수 보이생차 1999.

대설산은 해발 2200m에서 2750m 사이에 그 유명한 천년 야생 고차수 군락지가 있습니다. 맹고대설산 1호 차왕수는 수령이 2700년이 넘는데, 높이는 17m, 둘레는 어른 3명이 감싸 안아도 팔이 모자를 만큼 두껍고 나뭇가지가 펼쳐진 폭이 사방 10여 미터에 달하는 대왕수입니다. 대설산은 원래 삼림이 너무 울창해서 사람은 고사하고 짐승 한 마리도 비집고 지나가기가 어려울 만큼 빽빽했는데, 1997년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야생원시목이 고사하면서 밀집한 식물들 사이에 적당한 틈이 생기면서 고차수 군락지가 처음으로 인간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애뢰산은 원시삼림이 바다처럼 펼쳐져 장관을 이룹니다. 애뢰산은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차마고도가 지나갑니다. 차를 실어 나르던 마방과 차상들이 가장 힘들게 건너야 했던 길도 애뢰산입니다. 예로부터 사내 한 명이 길을 막고 버티면 1만 명이 와도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할 만큼 험준한 요새입니다. 해발 3000m 그 요새가 되는 관문에 야생차의 명소 천가채(千家寨)가 위치합니다. 천가채 야생 차왕수는 수령 2700년이 넘고 키는 25.6m에 둘레는 3m가 되고 나뭇가지가 펼쳐진 폭이 20m가 넘는 신령한 대왕수입니다.

무량산, 대설산, 애뢰산 천가채 등지는 오늘날에는 원생태 자연보호구역으로 차나무 채엽이 금지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량산 천년 야생 고차수 보이생차를 품(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량산 천년 야생 고차수 보이생차는 차 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강한 차 기운이 감미롭고 향기로운 차의 맛 아래 은근하고 묵직하게 깔려 있습니다.

우선 '무량산 천년 야생 고차수 보이생차 2005' 를 두 손으로 꺼내 듭니다. 면지를 풀기도 전에 야생차향이 번집니다. 2005년도에 만들었으니까 벌써 17년이 되었네요. 보이생차는 25년은 지나야 노차(老茶)가 됩니다. 17년은 햇차에서 노차로 익어가는 과정 중인데, 천년 야생 고차수의 모차(毛茶, 차의 원재료)가 워낙 훌륭해서 17년 차의 맛도 아주 훌륭합니다. 야생 차나무는 찻잎이 크고 두터우며 백호가 발달하지 않아 보이차를 만들면 찻잎이 까맣게 보입니다. 수색은 황금색으로 투명하고 윤기가 흐르며 약한 고미 뒤에 단맛이 풍부하여 한 모금을 마셔도 입에 단침이 돕니다. 물질감이 풍부합니다. 찻물은 식도를 따라 내려가고 향기는 휘발성이라 기도를 따라 올라오는데 숲의 온갖 들꽃 향기와 약초 향기에 멘톨 한 방울이 떨어진 듯 상쾌하면서 머리가 맑아집니다.

'무량산 천년 야생 고차수 보이생차 1999' 를 두 손으로 꺼내 듭니다. 병차(둥글게 긴압한 차)를 해괴(긴압한 차를 풀어내다)하는 손이 조심스럽게 떨립니다. 무량산의 원주민들이 수호신으로 모셨을 천년 차나무의 찻잎을 보이차로 만든 지 23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되니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입니다. 병차 표면이 진하다 못해 흑색으로 보이며 윤기가 흐릅니다. 자사호에서 찻잔으로 떨어지는 찻방울이 등황색으로 맑고 영롱하고 윤기가 흘러 마시는 보석 같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뾰족하게 컷팅된 보석이 아니라 땅속에 묻혔다가 나온 천년 옥입니다. 한없이 둥글고 부드럽습니다. 은근하고 품위 있습니다. 차를 한 잔 음미하고 고요히 앉아 있노라면 차 기운이 저 아래 땅 밑에서부터 묵직하게 밀려옵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종소리의 파동처럼 차를 마신 후에 차 기운이 파도처럼 온몸을 휘어 감습니다.

〈잇다it茶 대표〉

靈영通통 비구·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모집대상** : ① 특별시·광역시 각 도별 종무원장
② 미륵보살(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역할 각 1명
※ 참고사항 : 모집②번에 속하는 역할은 소정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 **모집자격** : ① 미륵부처님을 주불로 모셨거나 모실 분.
② 개인 사찰이나 공찰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영가능 하신 분.
(미륵보살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 **종무원장에게 드리는 혜택** : 현대의술로도 안 되는 간질, 정신질환, 여러가지 고질병 가정의 우환, 질고, 병고, 액란 완치법(상담결과에 따라 암치료도 가능)을 연합, 사·암으로도 가능합니다.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화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거제도, 울릉도 등
19개소 종무원장님을 초빙합니다.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10-7321-0404

대한불교문수종 종 정 **지광** 총무원장 **동진** 합장

대인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노혜2길 162

탈종공고

• 사찰명 : 지통사
• 주 지 : 상묵 (속명 : 노연만)
• 주 소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20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도운사
• 주 지 : 경월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175번길 28 (신흥동 현진A 601호)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법하